

“외국인 관광객 공략”...화순 로컬여행 새 모델 제시

KOPLE·한양대 연계 프로그램 진행
도장리 발노래 등 체류형 체험 ‘호평’
자유여행 상품 출시...FIT 시장 공략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이 KOPLE·한양대 국제처와 함께 추진한 로컬여행 프로그램이 잇따라 성과를 내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화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18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군문화관광재단이 지난 8월 코플(KOPLE)과 체결한 외국인 로컬여행상품 공동 개발 업무협약(MOU)의 첫 성과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단은 KOPLE 전남·서울 지부의 축제 연계 방문을 시작으로, 한양대 국제처 취업캠프와 외국인 자유여행 상품 출시까지 연달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외국인 대상 로컬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제26회 화순운주문화축제’와 연계한 KOPLE 방문 프로그램이 진행돼 전남·서울 지부 교환학생 80여명이 화순을 찾았다.

이번 행사는 KOPLE 전남·서울 지부가 함께 한 첫 합동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지난 1일 열린 화순 운주문화축제에서 KOPLE과 지역 주민, 관광객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 제공

참가자들은 지역 주민과 함께 화순의 무형유산 ‘도장리 발노래’를 부르며 춤추는 공동 다례를 체험했으며, 구복규 화순군수 초청으로 ‘꽃강길 음악분수’ 야경을 즐기며 지역 문화를 깊이 체험했다.

외국인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체험한 뒤 “실제로 이런 로컬 경험은 한국에서 쉽게 접하기 어렵다”며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이어 7·9일에는 한양대 국제처가 주관한 외국인 석·박사 교환학생 취업캠프가 2박3일 일정에

로 열려 50여명이 화순을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양참사 댁에서 ▲한식 만들기 ▲오로시 예술공방 공예 체험 ▲쌍봉사 힐링 요가 등 재단과 KOPLE이 공동 기획해온 로컬여행 콘텐츠를 온전히 경험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헌신에 감사”...고흥군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 위문

공영민 군수, 봉사정신 계승 다짐

고흥군은 18일 “최근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소록도의 천사’로 불린 마리안느 슈퇴거(92)와 고(故) 마가렛 피사렛의 가족, 그리고 두 사람의 소록도 봉사활동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온 오스트리아 가톨릭 부인회를 만났다”고 밝혔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1982년부터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위해 헌신한 간호사로 2005년 본국인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 마가렛은 지난 2023년 별세했으며, 마리안느는 현재 오스트리아에서 생활하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마리안느를 만나 “건강한 모습으로 뵙 수 있어 감사하다. 소록도에서 보여준 조건 없는 사랑에 군민을 대신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두 분의 정신을 이어받아 고흥을 자원봉사의 성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마리안느는 “소록도와 고흥군,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다”며 거듭 감사



공영민 고흥군수가 최근 오스트리아를 방문 ‘소록도의 천사’라고 불리는 마리안느 슈퇴거를 만나 감사의 뜻을 전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고흥군 제공〉

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고흥군은 두 사람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2016년 명예 군민으로 위촉했으며, 안정적 생활을 돕기 위해 군 예산으로 매월 생활안

정 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 운영, 봉사대상 시상, 청소년 봉사학교 등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두 분의 숭고한 봉사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주성학기자

여수시 “지역 현안 반영한 국비 확보 총력”

정기명 시장, 국회 방문 지도부 연담

섬 방문의 해·정화운반선 등 건의

여수시가 국회의 다음 해 정부 예산 확정을 앞두고 지역 현안 반영을 위한 국비 확보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정기명 여수시장 이 2026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둔 국회를 방문해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조정되는 단계에 맞춰, 과소·미반영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 시장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병도 예결위원장, 안도걸·조계원·박희승 의원 등을 만나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섬의 과정에서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2026 섬 방문의 해 추진 ▲여수 섬 지역 여객선 반값 운임 시범 지원 ▲진남관 주변 호국문화관광 플랫폼 조성 ▲도서 지역 정화운반선 건조 ▲도원사거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 등이다.

여수시는 정부 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및 예결위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역 현안사업이 정부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산업 집체로 지방세수가 줄어 재정 여건이 어려



정기명 여수시장(사진 왼쪽)이 지난 1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증액을 위해 국회를 방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여수시 제공〉

운 상황”이라며 “예산안 확정까지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2026여수세계계섬박람회 성공과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순천시, 수험생 문화유산탐방 프로그램 운영

28일 정유재란 흔적 등 체험

순천시는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오는 28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순천문화유산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선과 근대유산을 잇다’를 주제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수험생활에서 잠시 벗

어나 순천의 역사적 자원과 문화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조선시대 정유재란의 흔적부터 근대 기독교 역사까지 순천 곳곳에 남은 다양한 문화유산을 살펴본다.

앞서 시는 관내 1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10개 학급 200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프로그램은 오전·오후로 나뉘어 진행되며, 오전에는 해설사와 함께 정유재란 역사체험학습장 또는 기독교역사박물관을 방문해 유적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고, 오후에는 어울림체육관에서 공연 관람과 FM 라디오 만들기, 레크리에이션, 미니게임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펼쳐진다.

순천시 관계자는 “수험생활을 마친 학생들이 잠시 재충전하며 순천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한 프로그램”이라며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

장성군, 내년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신청 접수

1985-2008년생 독립 영농 3년 이하

최대 3년간 정착·후계농 융자 지원

장성군은 18일 “내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 달 1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85-2008년생 중 독립 영농 경력 이 3년 이하인 청년으로, 농지와 거주지가 모두 장성에 있어야 한다. 독립 경영을 계획 중인 경우에는 장성에 영농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에 선정되면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으며,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는 월 100만원, 3년차는 월 9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융자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5억원 한도로 연 1.5%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5년 거치 후 20년 동안 원금을 균등 상환하는 조건이다. 단, 융자 한도는 신청자의 신용도와 담보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관련 지침과 안내는 장성군 누리집 검색창에서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입력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밖에 문의는 장성군 농업축산과(061-390-8400) 또는 청년농업인 콜센터(1670-0255)에서 가능하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들이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구례군 생애주기별 정책 ‘가이드북’ 발간

모바일·소책자로 열람 가능

구례군은 군민이 생애 전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구례군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18일 구례군에 따르면 가이드북에는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공통 분야까지 총 7개 분야 174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군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즉시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제작했으며, 각 분야별 색인을 포함해 ▲지원 내

용 ▲신청 절차 ▲문의처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실질적인 활용 편의를 높였다.

구례군 홈페이지에서는 모바일북 형태로 열람할 수 있고 휴대가 용이한 소책자 형태로 제작돼 읍·면사무소에서 군민 안내 자료로 활용되며, 향후 인구정책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생애 단계별로 군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한곳에 정리한 실용적인 자료”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 정책을 강화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곡성군 가을철 진드기 감염병 예방 교육

경로당 300곳·주민 3천명 대상

백신 無 예방 최선...고령층 주의

곡성군이 농사철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18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지역에서 의심 환자 발생한 가운데 대부분 농작업이나 야외 활동 중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기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으로, 군은 지난 9월부터 관내 읍·면 경로당 300개소 주민 3천여명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진행 중이다. 〈사진〉

특히 쯔쯔가무시증 예방수칙을 중점 안내하며, 야외 활동이 많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에게도 진드기 물림 예방법을 적극 홍보했다. 해당 감염병은 예방백신이 없어 진드기에 물리



지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며, 풀숲이나 산책로 이용 시 긴팔·긴바지를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농작업 시 토시 착용 ▲기피제 사용 ▲귀가 후 옷 털기·세탁 및 샤워 등이 필수적이다. 진드기에 물린 뒤 2주 이내 발열·근육통·오심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은 산림과 농경지가 많아 진드기 접촉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며 “고령층 비중이 높은 만큼 작은 증상이라도 빠르게 진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곡성=김영필 기자